

# 다니엘의 책 - 제73번

역사적 유사성 밝히기: 여로보암의 기만과 재림운동이 겪은 신앙의 시험

Jeff Pippenger

2024-02-06

레위기 25장과 26장의 깨진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북왕국과 남왕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2,520년 동안 흩어졌다. 첫째 진노가 끝난 때와 마지막 진노가 끝난 때 사이의 46년은 1844년에 그 두 왕국이 하나의 영적인 현대 이스라엘 왕국으로 모이는 것을 상징했다. 그 두 왕국의 모임은 에스겔이 합친 두 막대기와 엘리야 이야기에서 사렘다 과부가 주워 모은 나뭇가지 두 개로 상징되었다. 1844년 10월 22일에 북왕국과 남왕국의 예언적 역사가 종결되었고, 그리함으로써 그 두 왕국이 시작될 때의 역사가 반복되었다.

여로보암은 그의 백성들이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왕국에 거짓된 예배 제도를 도입했다.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면, 이 백성의 마음이 다시 그들의 주 곧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였더라. 이에 왕이 의논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 이스라엘아, 보라,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로다, 하고, 하나는 벰엘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그 하나 앞에 경배하러 단까지 갔음이라. 또 그가 산당의 집을 짓고 레위의 자손이 아닌 백성 중 가장 천한 자들로 제사장들을 삼았더라.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절기와 같은 절기를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닷셋날에 정하고 제단 위에 제사를 드렸으니, 벰엘에서도 그와 같이 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을 드렸고, 또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벰엘에 세웠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닷셋날에 벰엘에 자기가 만든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였으며,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상 12:26-33.

그의 예배 체계는 가톨릭(이교)의 전형적 모습이었다. 아론의 반역에서처럼, 그것은 짐승을 위한, 곧 짐승의 형상을 세웠다. 두 송아지 형상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바벨론을 상징했다. 그 형상들은 이집트의 신들에게 봉헌되었고, 아론이 그들을 규정했던 그대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신들"이라고 불렸다. 그는 두 성읍에 제단 둘을 쌓았는데, 둘을 함께 놓고 보면 교회(벰엘)와 국가(단)의 결합을 나타낸다. 그 제단들은 참된 제단, 곧 그리스도의 모조품이었는데, 이는 가톨릭이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을 자처하는 것과 같다. 그는 가톨릭의 사제들이 그러하듯 타락한 제사장직을 세웠다. 그는 하나님의 어느 참된 절기와도 명확히 다른 날을 그의 예배일로 정했는데, 이는 참된 예배일과 거짓 예배일을 둘러싼 논쟁을 상징한다.

그의 거짓된 예배 제도의 출범 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짜 예배 제도를 책망하시려고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보라, 여호와와 말씀의 받아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렀고,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다. 그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그 제단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네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불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주며 이르되,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니라. 보라,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열왕기상 13:1-3.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장차 태어날 것을 지목하는 세 가지 예언을 선포했다. 그는 요시야가 그 가짜 제단에서 섬기던 악한 제사장들을 죽일 것이며, 또한 바로 그 제단 위에서 사람들의 뼈를 태울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또 여로보암에게 표적을 주어, 여로보암의 제단이 갈라져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나, 여로보암은 그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분노하여 선지자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대적하여 외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제단 위에서 손을 펴며 '그를 붙들라' 하니, 그를 향하여 퍼던 그의 손이 말라 다시 자기에게로 거두어들이지 못하였다. 또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으로 보인 표징대로 된 것이었다. 열왕기상 13장 4-5절.

그 표적은 즉시 이루어졌고, 여로보암의 손은 마비되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 손이 다시 회복되게 하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본래와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기운을 차리라. 내가 네게 상을 주리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르되, 네가 네 집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겠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하니라.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베델에 올 때 왔던 길로는 돌아가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상 13:6-10.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의 끝을 그 시작을 통해 보여 주시며, 문자적 고대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의 시작은 두 막대기가 연합되어 하나의 막대기가 되는 역사 속에서 끝나는데, 이는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한다.

두 막대기가 연합된 역사에서 1798년 종말의 때에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이 시작되었다. 한밤중 외침에서의 성령의 부으심에 앞서 두 막대기(왕국들)가 모아지고 있었다. 1844년 봄의 첫 실망 때, 개신교도들은 그 시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가톨릭의 딸들이 되었으며, 여로보암이 예표한 바와 같이 거짓된 예배 체제의 개시를 되풀이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교회를 로마 교회의 미신과 전통과 관습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이루신 사역이었다. 마르틴 루터 시대 이후 점점 더 많은 진리가 드러나, 두로의 음녀가 기독교를 거짓으로 표방한 이교적 예배 체계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 주었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포로 된 그분의 백성을 어둠에서 이끌어내시려는 목적을 가지셨다. 그분은 자신의 율법을 주시게 하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하셨다. 1798년에 봉인이 풀리며 드러난 지식의 점점 더 밝아지는 빛을 따르기를 개신교도들이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1844년에 율법과 그리스도의 참된 성소 사역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심판의 때의 기별을 거절한 것은 그들이 로마 교회의 딸들이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며, 이어서 그들은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배도한 개신교)로 규정된 거짓된 예배 체계를 일으켰다. 1844년 10월 22일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간 충실한 밀러주의자들은 셋째 천사의 빛을 받아, 이교의 주된 전통, 곧 태양 숭배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개신교라 칭하는 그 거짓 예배 체계를 책망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1844년 10월 22일 도래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인식하고 선포한 밀러주의 재림운동을 예표하였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으로부터 그의 집에 와서 쉬며 기력을 회복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구체적인 지시를 밝혔다. 그 명령은 밀러파 재림운동에게도 주어졌다. 그 명령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고, 밀러파 재림운동은 이미 개신교 교단들로부터 나와 있었다. 그들은 1844년 봄의 첫 실망 때 개신교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예레미야는 그 유다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것과 동일한 지시의 예를 보여 준다.

주의 말씀을 발견하여 내가 그것을 먹었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려졌나이다. 나는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였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손 때문에 홀로 앉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분노로 채우셨기 때문이니이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항상하며, 나의 상처는 고칠 수 없어 낫기를 거절하나이까? 주께서 정녕 내게 거짓말하는 자와 같으시며, 마르는 물과 같이 되시겠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와 네가 내 앞에 서게 하리라. 네가 천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골라 내면 네가 내 입과 같이 되리라. 그들이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에게 견고한 못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져낼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며, 포악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리라. 예레미야 15:16-21.

둘째 화의 시간 예언이 성취되던 1840년 8월 11일,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가 손에 펼친 작은 책을 들고 강림하였고, 요한은 가서 그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레미야는 역사상 그 시점에 그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을 대표하며, 그 말씀들은 꿀같이 달았으니, 그것들이 그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예레미야는 '분노'로 '가득' 찼고, 그는 '상처'를 입어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손'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 '에게' '거짓말쟁이'와 같고, '끊어진 물'과 같으시다고 암시했다. 주님은 1843년 도표의 몇몇 수치에 있는 오류를 그의 '손'으로 덮어 두셨다.

예레미야는 하박국의 환상이 지체되었을 때 밀러주의자들의 첫 실망을 상징한다.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이들에게는 '비'로 상징된 그 메시지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환상은 아직 정한 때가 있으며, 끝에는 말할 것이고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지체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올 것이니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고 그 메시지(비)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지 지체되었을 뿐이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와서 내 앞에 서게 하리라. 네가 비천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골라 내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로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 실망을 겪은 뒤, 예레미야는 메시지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때 생겨난 낙담을 떨쳐 버리고 주님의 섬김으로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였다. 예레미야가 정해진 요구들을 충족하면,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대변인이 되도록 허락하실 것이었다.

현재 우리의 연구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그의 실망을 두고 "기뻐하던"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관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조롱하는 자들은 예레미야에게 돌아올 수 있으나, 예레미야는 결코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는 막 가톨릭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하여 바벨론의 딸들, 곧 바알과 아스다롯의 거짓 선지자들이 된 개신교도들에 맞서 선 자들을 대표했다. 예레미야는 또한 예언적 선상에서 같은 지점에서, 북왕국의 시작에 여로보암의 거짓 예배 체계를 꾸짖었던 유다의 선지자를 대표했는데, 이는 북왕국 역사의 끝에 가톨릭의 형상인 거짓 예배 체계가 도입되는 것을 예표한 것이다. 여로보암이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을 때, 그 선지자는 자신이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아야 한다고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상을 주리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왕의 집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겠고, 이곳에서는 떡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열왕기상 13:7-9.

유다 선지자의 말은 엘리야 이야기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과 부합한다. 물론 밀러주의자들의 역사도 엘리야의 역사이니, 밀러가 엘리야였기 때문이다. 엘리야 이야기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의 거짓 선지자들은 기만의 춤을 추었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의 제물을 사르셨을 때 그것이 어리석음으로 드러났으며, 이로써 밀러주의 역사에서의 한밤중의 외침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부어주심을 예표하였다. 그 역사에서의 대결은 둘째 엘리야, 곧 헤로디아의 딸(살로메)이 벌인 기만의 춤 동안 세례 요한이 직면했던 대결을 대표하였다. 헤로디아는 이세벨로 예표되었고, 이세벨은 가톨릭 교회의 상징이다.

1844년에 개신교 교회들은 헤로디아(이세벨)의 딸 살로메가 되었다. 기만의 춤 속에서 헤롯은 자기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는 생일날 그렇게 했는데, 이는 아합(북쪽의 열 왕국의 왕)으로 표상되는 열 왕들이 그들의 왕국을 교황권(이세벨)에게 주기로 동의하는 마지막 때를 예표한다. '네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동맹의 상징이며,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그가 배도한 왕과 결코 동맹을 맺거나 그의 거짓된 예배 체계를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리고 있었다.

이는 주께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신 바와 같다. 곧 "조롱자들의 모임"(배도한 개신교)은 예레미야에게로 돌아올 수 있으나, 예레미야는 결코 그들에게 돌아가서도, 자기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셔도 안 된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유다의 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는 유다로 돌아가기 전에—그에게 맡겨진 일을 마치기도 전에—거짓되고 속이는 선지자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엘에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베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그가 왕에게 한 말도 아버지에게 전하였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는지를 그의 아들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나귀를 내게 안장해다오.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얹으니, 그가 올라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하였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오? 그가 이르되, 그렇소.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시오. 그가 말하였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갈 수도, 그대와 함께 들어갈 수도 없소.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을 먹거나 물을 마실 수도 없소. 이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기 때문이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이 예언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한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소. 그러나 그는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에 그가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상에 앉아 있을 때, 그를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여, 도리어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네게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그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가 떡을 먹고 마신 뒤에, 그가 데려왔던 그 선지자를 태우려고 나귀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그가 길을 떠나 가다가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고, 그의 시체는 길에 내던져졌으며, 나귀는 그 곁에 서 있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었다. 마침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내던져진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와서 늙은 선지자가 살던 성읍에 이 일을 알렸다. 그를 길에서 데려왔던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가 찢기고 죽임을 당하였다" 하였다. 그리고 그가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워라" 하니,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지웠다. 그가 가 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내던져져 있었고,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었으며,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다시 데려왔고, 그 늙은 선지자는 그를 애곡하고 장사하려고 성읍으로 갔다. 그는 자기 묘실에 그의 시체를 안치하였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여 이르되, "아아, 나의 형제여!" 하였다. 그를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그 묘실에 나를 묻고,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대적하여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이라." 열왕기상 13:11-32.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진리인지 증언할 때, 그 진리는 영원히 진리로서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반하는 뒤늦은 추측들은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 대한 해석을 들고 나와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진리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께서 친히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그의 성령의 증거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모순되는 새로운 빛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일어나고 또 다른 이도 일어날 것이다. 이 진리를 확립하는 일에 참여하여 그 경험을 지나온 몇몇은 아직 살아 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사도 요한이 그의 생애의 최후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지나온 그 경험을 그들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거듭거듭 되풀이해 증언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죽음으로 쓰러진 기수들은 그들의 글이 재인쇄됨으로써 말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무엇이 이 시대의 진리인지를 증언해야 한다.

우리 신앙의 특별한 점들과 모순되는 메시지를 들고 오는 자들의 말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산더미처럼 모아,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론 주위에 그것을 증거로 쌓아 올린다. 이런 일은 지난 오십 년 동안 거듭거듭 행해져 왔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런 적용이 하나님께서 지난 오십 년 동안 지탱해 오신 기초에서 기동 하나라도 옮겨 놓는 것이라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그런 적용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져 온 과거의 메시지들에 능력과 힘을 주었던 성령의 놀라운 나타남을 알지 못한다.

G 장로의 증거들은 신뢰할 수 없다. 그것들이 받아들여지면, 지금의 우리를 만든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 그가 성경으로 증명하려는 요점들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 경험이 오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고, 하나님의 천사들의 인도를 받았다. 성소 문제에 대한 제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주어진 것이었다. 자신들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의 특징들에 관해서는, 모두가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웅변적이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과 모순되지 않으신다. 성경의 증거를 진리가 아닌 것을 증언하도록 억지로 끼워 맞추면, 그것은 오용이다. 또 다른 이가,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일어나 소위 큰 빛을 가져왔다고 하며 자기 주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옛 이정표를 고수한다. [요한일서 1:1-10 인용.]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제는 죄를 그 올바른 이름으로 불러야 할 때가 왔으므로, 이 말들을 이 시대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회심하지 않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사역에 방해를 받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내놓는 새로운 이론들의 창시자로 여겨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이 받아들여지면, 지난 오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진리를 확증하시며 그의 백성에게 주어 오신 진리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선별된 메시지, 제1권, 161쪽.